

전화번호 업무제안 서울본사 민원내용

시내 전화 본부장님께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상주국에 근무하는 임그루입니다.

무례하게 본부장님에게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한다는 뜻에서 애교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근무를 하면서 가입자들에게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 지정에 관하여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전화번호 지정에 관한 업무제안을 했습니다. 며칠 밤을 지새며 작성한 것이라 심사위원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채택(94. 12. 6), 한국통신 사보 95년 2월호에 실리고 재심에서 채택(95. 4. 10), 그리고 본부에서 불채택, 재심에서 또 불채택.

저는 불채택 사유가 타당하면 승복하겠는데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시내 전화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첨부 1. 업무제안 내용

2. 그 동안 (상주국 불채택 및 채택내용) (대구본부 2번의 불채택 내용)

1995. 11. 28

상주 전화국 임그루 올림

전화번호 업무제안 서울본사 민원답변

우 110-777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 (02) 750-5133 FAX 750-5129

문서번호 내영2150 11416

시행일자 95. 12. 2

경유

수신 상주전화국 임그루 귀하

참조

제목 전화번호 부여제도 개선제안에 대한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공사의 사업발전을 위하여 최일선 현업기관에서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95. 11. 28.자로 시내사업본부장에게 보내주신 “전화번호 부여제도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본사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을 느껴 작년말부터 사내 및 사외의 의견수렴 과정과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 등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금년 중에 개선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 중에 있으며
3. 개선내용은 국가기관, 공익단체, 다량 이용가입자 등의 선호번호 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구체적인 내용은 귀하의 의견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근본방향과 취지는 귀하의 제안내용과 유사함을 말씀드립니다.
4. 성실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과택내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답변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전화번호 지정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금년 중에 개선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 중” 이라는 것에 호뭏했습니다. 더 이상 예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후로는

○.96년도에 담당과장님이 제 근무 평가를 제일 좋게 했는데 부장님 국장님이 제일 나쁘게 하여 진급이 안 되게 했습니다.

○.다른 국으로 출장 가서 그 국의 국장님께 인사를 하면 갑자기 인상이 좋지 않게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당시는 매월 발행하는 사보가 있었습니다. 홍보실에 시 수필 등을 올리면 시로서 부적당하다. 8월은 여름이고 9월은 가을이라 계절에 맞지 않다. 청바지 때문에 글이 불량하다는 는 등의 이해 안 되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무 대학원이던 평가 양식에 국장님이 최고점수 평점 5점을 주면 학자금이 지원됐습니다. 저는 97년도에 대학원에 합격하여 학자금 지원 안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 혼자만은 4점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조퇴를 하여 대학원공부를 했는데 저는 못하게 했습니다. 감봉 2개월 징계는 대학원 수업 때문에 조퇴하려는데 못하게 한 것 때문입니다. 대구본부에서도 서울 본사 재심에서도 부당하다고 증명을 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입니다. 예로 제가 결제를 올리면 까다로웠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사규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갑 제30의 1, 2호중(대학원공부를 하면 ‘시간을 지원하여야 한다. ’는 사내교육 사규)

※. 제 생각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잘 되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용으로 일반 가정집에서는 드물게 하이텔을 신청하였고, 한국통신은 통신회사라 각국에 인터넷용으로 하이텔 몇 대씩 있었습니다.

제가 하이텔에 업무제안 심사내용을 올릴 때 한국통신 노사분규가 절정인 때였습니다. 그 영향으로 과장급 이상인분들께서 노조간부들에게 항의를 받아 제가 한국통신 관리자들에게 괴심 죄로 찍혔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생각과 달리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로 인하여 한국통신과 법원의 잘못된 업무가 외부로 드러나 조금씩 고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후에는 잘 될 것입니다.

임 그루